

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부총리 모두발언(10.23일)

- 지금부터 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- 최근 세계 경제질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합니다.
 -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소재·부품·장비를 둘러싼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.
- 이러한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소재·부품·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단순한 산업정책의 영역을 넘어 경제안보의 핵심이자 국가 생존의 필수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.
 - 핵심 소재와 정밀 부품, 첨단 장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AI, 반도체, 이차전지 등 미래 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.

[소재·부품·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('26~'30년)]

[소재·부품·장비 특화단지 종합계획('26~'30년)]

-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소재·부품·장비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①혁신 역량, ②시장 역량, ③생태계 역량 등 3대 역량 강화에 집중하겠습니다.
 - 첫째, 초격차 기술 확보 및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4대* 유형별 혁신·도전기술을 도출하여 집중 투자하고,
 - * 시장 선점형(첨단), 시장 전환형(고부가), 규제 대응형(탄소중립), 공급망 확보형(핵심광물)
 - '30년까지 15대 슈퍼 을(乙) 프로젝트*(現 3개 프로젝트 착수)를 통해 세계 최고 소부장 기업(한국형 ASML)을 육성하겠습니다.
 - * 7년 이상의 장기, 대규모(200억원 이상) R&D 지원을 통해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1등 소부장 기업 육성 프로젝트

- 둘째,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및 내수 신시장 창출을 위해 주요국 산업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맞춤형 수출전략을 추진하고, AI, 방산 등 분야에 대한 소부장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.
- 셋째, 수요-공급기업 모두가 성장하는 생태계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, 생산, 구매로 이어지는 3대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.
 - '30년까지 차세대 소부장 품목*의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10대 생태계 완성형 협력모델을 추진하고, 소부장 특화단지**도 10개 추가 지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.

* (예) 전고체 전지, 반도체 유리기판 등

** 수요-공급기업이 집적화된 국내 대표 소부장 생산기지(그간 총 10개 既지정)

[공급망안정화기금의 소재·부품·장비 지원방안]

□ 다음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소재·부품·장비 지원방안입니다.

- 작년 9월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지난 1년간 소부장 기업의 소재·부품·장비 확보, 생산시설 확충 등에 약 3.5조원('25년 9월말 누적 기준)을 지원하였습니다.
- 향후 소부장 특별회계와 공급망기금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소부장 특별회계에서 지원한 기술개발 사업이 상용화 단계에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공급망기금을 지원하겠습니다.

* (예) ① 소부장 특별회계 : 반도체·이차전지 등 핵심소재 국산화 R&D

→ ② 공급망안정화기금 : 시설투자·운영자금 등 후속자금 저리 지원

- 우선, 소부장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되는 재정사업 중 공급망 안정화 효과가 높다면 경제안보품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급망기금을 지원하겠습니다.
- 또한, 경제안보품목 중 소부장 품목에 대해서는 초저리 대출 등 우대금융을 제공할 예정입니다.

[소재·부품·장비 협력모델 승인에 관한 건]

□ 마지막으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초기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협력하는 소부장 협력모델 3건*을 추가 승인하고, R&D, 정책금융, 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겠습니다.

* ①LFP 전구체, ②대면적 OLED용 정전척, ③수처리용 차세대 필터 모듈

○ 이차전지,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수요-공급 기업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

□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소부장 자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든 계기였습니다.

○ 당시 우리는 정부, 기업, 연구기관이 힘을 모아 기술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였습니다.

□ 다시 한번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냅시다.

○ 정부는 기업의 혁신과 도전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.

□ 이어서,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부위원장인 산업통상부장관을 대신하여 차관의 말씀이 있겠습니다.